



홍보영상

융복합 공연

두 개의 눈

효녀 심청이 눈 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가 용왕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일반적인 <심청가>와 달리, <두 개의 눈>에서는 심학규의 일대기를 다룬다.

20세에 안맹한 심학규가 딸을 얻음과 동시에 부인인 곽씨를 해산병으로 잃게 되고, 어린 딸을 어찌지 못하다가 동네 부인들에게 젓동냥을 해가며 키워내는데, 심학규의 남다른 부성은 효녀 청이를 키워낸다. 눈먼 심봉사의 사고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인당수 제물로까지 팔려가는 심청의 이야기는, 마지막 심청과 심봉사의 재회,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전개된다.

기존 원안에서 가치관의 무게중심을 덜고, 관객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리를 바라보면서 심학규만의 로드무비를 만든다.

초연연도 2020

장르 판소리미디어극

창작진 무토,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1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3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5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8m

해외공연

2024 키르기스스탄 국립문화원 공동기획 공연

2026 대만 국립전통예술센터 초청





홍보영상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의 전모를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 없이 담아낸다. 관객 몰입형 공연 방식으로 제작되어 관객들 스스로가 역사를 그리고 작품을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한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하지만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숙녀에서 다시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러는 사이 오빠의 얼굴은 점점 잊히고 이제 더는 오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무대에서는 그해 5월의 순간들이 재현되고,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 그 해 5월, 오빠는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한 아이에게서 잊혀가는 오빠의 얼굴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얼굴이 아님을, 그리하여 공연장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보게 된다.

초연연도 2020

장르 연극

창작진 (주)아이엠컬처, 극공간소 마방진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65명

일정 셋업 5일 | 리허설 2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2.5톤 트럭 2대, 1톤 트럭 3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블랙박스 형태의 공간 내 400석 내외

무대크기 폭35m × 깊이20m × 높이8m(최소)

* ACC 예술극장 극장1 공연 시 로드형 무대, 객석 400석 운영



시간을 칠하는 사람



홍보영상

시간을 칠하는 사람 * 대극장/야외극장 버전

옛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그 건물과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시아 최대 규모 블랙박스 극장에서 360° 움직이는 객석에 관객을 태우고 배우들과 함께 주인공 칠장이의 기억 속을 여행한다. 광주를 지움으로써 광주의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광주항쟁을 민중들의 항쟁으로 다시 쓴다.

오브제극 | 시간을 칠하는 사람 * 중극장/소극장 버전

‘시간을 칠하는 사람’의 스펀오프(번외작) 작품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딸의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의 아픔을 종이 오브제로 표현한 연극이다. 오브제극 버전은 종이 오브제만으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을 형상화하며, 폭력과 잔혹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강한 울림과 무게, 감동을 전달한다. 관객은 시간과 기억의 파편을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기억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초연연도 2020

장르 연극

창작진 극단 하땅세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대극장-야외 35명 | 중극장-소극장 13명

일정 셋업 4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2대,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 대극장(블랙박스형, 120석/이동형 객석)

— 중극장(프로시니엄형, 500석)

— 소극장(100석-200석)

— 야외극장(이동형 객석)

무대크기 — 대극장/야외: 폭33m × 깊이57m × 높이14m

— 중극장/소극장: 폭11m × 깊이10m × 높이4m

해외공연

2025 에딘버러프린지페스티벌 공연

2025 일본 베세토 페스티벌 선정작



대극장 | 블랙박스



중극장 | 프로시니엄



야외극장



소극장

스토리 인 아시아



홍보영상

아시아권의 설화를 엮은 책 《백 개의 아시아》에서 입과손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이 두 개 국가의 설화를 원작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과 ‘소녀’가 남자 또는 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지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 주인공 ‘소년’,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지를 재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한국의 전통음악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전통음악을 활용하여 이국적이면서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리듬을 통해 2명의 소리꾼이 ‘다인화자’기법으로 폭넓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연연도 2019

장르 판소리

창작진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9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2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18m × 깊이14m × 높이8m

해외공연 2023 중국 베세토 페스티벌 선정작



뮤지컬

솔루우수우



아름다운 호수의 여왕 솔루우수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 아이들의 우정 이야기

키르기스스탄의 글 작가와 한국의 그림 작가가 제작한 그림책 《이식쿨 호수의 솔루우수우》를 원작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를 배경으로 일부 넘버에 키르기스스탄 전통 음악 앙상블이 작곡과 연주에 참여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자연과 음악을 담았다.

전쟁 쓰레기로 물이 오염되고 말라버린 호수. 푸른 호수의 여왕 솔루우수우와 소녀 수우는 서로 다른 언어를 뛰어넘어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호수를 깨끗하게 할 생각을 떠올리는데...

전쟁으로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호수는 맑은 물을 되찾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1
장르	뮤지컬
창작진	(주)네버엔딩플레이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8명
일정	셋업 3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1톤 트럭 2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2m x 깊이12m x 높이13m





홍보영상

무용극

마디와 매듭

동지부터 하지까지

춤과 노래로 엮은 여인들의 이야기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작품이다.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인간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24절기가 작품의 큰 틀을 구성하며, 절기별로 달라지는 풍경과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시간의 마디 마디 안에서 여인들의 '웅이진 마음에' 서리고 '세월에 묻은' 이야기들이 드러난다. 추위와 배고픔, 허리 펼 틈 없는 고단한 농사일을 건디는 날들 속에서 때로는 짓궂게 킬킬대다가, 때로는 떠나보낸 누군가와 한 시절을 절절히 그리워하기도 하고,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한입 베어 무는 복숭아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지난 세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초연연도 2022

장르 종합극

창작진 극본 배삼식 | 음악 최우정 | 연출 안무 정영두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41명

* 콘서트, 무용공연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공연 구성에 따라 투어인원 조정 가능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2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35m x 깊이20m x 높이8m(최소)



척



홍보영상

〈척〉은 위기의 시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열쇠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국제표준 도량형 단위인 미터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도량형 ‘척’을 키워드로, 논리적 효율성이 거세한 ‘다름’의 세계를 재고한다. 손가락을 넓게 펼친 모습에서 유래하여 ‘신체척’이라고도 부르는 ‘척’은 길이와 너비의 기본 단위다. 신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의 신체로 세상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세계를 측량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압축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표준화’가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는 열린 태도에 닿아 있다. 무용가들은 각자의 ‘평’을 측정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를 실험하고, 곧이어 각자의 기억의 시간이 축적된 장소로 뻗어 나간다. 이제, 관객은 몸이 성찰하고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을 바라본다.

초연연도 2021

장르 현대무용

창작진 안무·예술감독 안애순, 옐로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7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13m x 길이13m x 높이18m(최소)

해외공연

2024 영국 런던 더플레이스 초청, 영국 맨체스터 라우리 초청



길 위의 아이



1960년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의 소년수용소 선감학원*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고립된 두 소년은 탈출의 한 방법으로 방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둘은 죄의식에 휩싸여 혼란을 겪는다. 그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죄의식은 둘의 상상놀이 안에 드러나게 되고 각자의 입장이 다름을 알게 된다. 친구인 둘의 관계는 처음 탈출을 도모할 때와 달리 변질된다.

2인극 형식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놀이가 거칠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고, 소리를 통해 밖과 안을 단절시키며 현실에서 비현실로,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놀이에서 무의식으로의 전이를 통해 관객은 소년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함께 침잠해 들어간다.

* 선감학원: 1942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 1970년대 말까지 존속된 소년 감화원

초연연도	2022
장르	연극
창작진	올리브와 찰콩
관람연령	12세 이상
공연시간	65분
투어인원	16명
일정	셋업 3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2m x 길이8m x 높이7m(최소)





홍보영상

어린이 공연

개굴개굴 고래고래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공감각을 일으켜 주는 공연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올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어린이 연극이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 모험을 떠나는 개구리 구르구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고래 선생님을 찾기 위한 구르구르의 모험

비가 내리지 않아 점점 사막화 되어 가는 숲. 개구리 구르구르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래 선생님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배를 타고 고래 선생님을 찾아 나선 구르구르는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구르구르는 무사히 고래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1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극단 즐겨찾기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3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7m x 길이7m x 높이4m



거인 앙갈로



춤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는 필리핀 민담 <바닷물은 왜 짭까?>라는 이야기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멧들'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어린이 음악극이다.

필리핀 전통악기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필리핀 민요 오르데-에를 편곡하여 주요 주제곡으로 활용하는 등 음악 속에 아시아를 담았다.

거인 앙갈로와 두 사람을 통해 우정, 배려, 이기심을 이야기하며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옛날 어느 마을, 소금섬에는 커다란 멧들이 뱅글뱅글 돌며 끝없이 소금을 쏟아낸다. 사람들은 바다 건너 소금섬에서 소금을 가져다 먹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풍랑이 닥쳐 더 이상 소금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다. 바다를 보며 한숨만 쉬던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사는 거인 앙갈로를 떠올린다. 과연, 사람들은 앙갈로의 도움으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1

장르 어린이 음악극

창작진 창작국악그림 그림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 주 관객층: 미취학아동 및 저학년 가족단위 관객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8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무대크기 폭7m x 깊이6m x 높이3m



마법의 샘



홍보영상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타지키스탄의 전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마법의 샘>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를 치료하고 구할 수 있을까?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평면의 샌드아트와 다양한 그림자 퍼포먼스는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배우들을 만나 공연을 즐기는 모두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마음을 두드리는 음악과 이국적인 의상은 타지키스탄의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관람 포인트이다.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신비한 마법의 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마법의 샘을 찾아 헤맸던 왕은 장터의 눈먼 소년이 이상한 노인이 가져온 마법의 샘물로 눈을

초연연도 2020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기륜 스토리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극장(500석)

무대크기 폭10m x 깊이7m x 높이7m(최소)

뜨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욕심 많은 왕은 소년을 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두고 사라진 노인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과연, 욕심 많은 왕은 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마법의 샘은 어디에 있는 걸까?





홍보영상

어린이 공연

세 친구

“도대체 태양은 밤 동안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

도대체 태양은 밤에 어디에 숨는지 너무나 궁금해진 새끼 염소, 새끼 양, 송아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친구인 세 마리의 아기 동물들은 목동들의 눈을 피해 몰래 유르트를 빠져나와 모험을 떠난다. 호기심이 많은 새끼 염소,

똑똑한 새끼 양, 힘센 송아지, 어린 세 친구들은 초원을 따라 먼 길을 달려 태양이 어두운 동안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린다. 세 친구들은 여러 위기와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를 지켜준다. 맹수들을 만나는 가장 큰 위기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온 친구들은 먼 길을 달려 저녁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다만 잘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 어른들은 당연히 잊어버린,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궁금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초연연도 2020

장르 인형극

창작진 인형극연구소 인스

관람연령 4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11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2.5톤 트럭 1대, 스타렉스 밴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7m(최소)





홍보영상

어린이 공연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아시아 어린이들의 소중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어린이 뮤지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강한 책임감과 쾌활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아는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고니와 아시아의 보물찾기를 시작한다. 지혜롭고 다양한 정보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페리,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똑똑박사 칼리,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 뭐든 똑딱 만들어내는 엘리, 상상력과 예술적 에너지가 넘쳐 친구들에게 언제나 웃음을 안겨주는 키니, 늘 즐거움이 넘치는 시아와 친구들은 아시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나선다. 귀엽고 친근한 동물 친구, 수천 년 간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지혜의 책,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용감한 영웅 등 다양한 아시아 각 지역의 귀한 보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초연연도 2017

장르 어린이 뮤지컬(영어 공연 가능)

창작진 플래넘지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20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3.5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0m x 깊이7m x 높이10m

해외공연 2017 KOREA FESTIVAL 아랍에미리트



어린이 공연

어둑시니

한국의 사랑스러운 요괴 '어둑시니'의 자기 존재 찾기 프로젝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몸집이 점점 커지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크기가 작아져 끝내 그 존재마저 사라지게 되는 요괴 '어둑시니'. 어린 어둑시니인 '어둑이'는 오늘도 사람들 사이, 어둑 속 틈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어둑이'는 다시 관심을 받기 위해 어둑에서 나와 빛의 세상으로 위험한 외출을 한다. 그러다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상처받은 외로운 '아이'를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잊히지 않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초연연도 2023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창작조직 성찬파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6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화물차 1대

규모

객석규모 공연 2개 버전

— 소극장(500석 미만)

— 야외극장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는 ‘멸종’을 이야기한다.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살 곳을 잃은 동물과 보금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불행해지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한다.
 서울의 어느 작은 달동네, 돈을 벌러 떠난 아빠를
 기다리는 한 소년.
 마을의 왕두목 할아버지, 구멍가게 아줌마, 친구
 같은 형아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소년은 어느 날,
 매일 밤 읽던 동화책 속 상상의 세계, 정글에 사는
 아기 코끼리가 된다.
 정글에서 다시 만난 코주부원숭이 할아버지, 코뿔새
 아줌마, 쥐사슴 형아까지.
 아기 코끼리는 정글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1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창작놀터 극단 야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2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무대크기	폭8m x 깊이8m x 높이4m



출동! 마임소방관



소방관들의 소방훈련과 화재진압 모습을 마임으로 알아가는 안전교육 공연

신나는 즐거운 공연방식으로 소방안전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마임, 저글링, 마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으로 변신한 마임맨들의 좌충우돌 안전 이야기.

공연 시작과 함께 객석에서 무언가를 찾는 마임맨들. 불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요령도 알려주며,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소방호스가 관객들에 손에 쥐어지기도 하며 일부 관객들이 무대에 나와 즐거운 상황에 함께 참여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배워본다.

초연연도 2018

장르 마임극

창작진 빨간신발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9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극장(300석)

무대크기 폭8m x 깊이5m x 높이5m(최소)

* 어린이집, 학교 등 투어 가능





홍보영상

어린이 공연

하티와 광대들

비슈누신이 지키는 황금나무 열매를 찾아 떠나는 신비한 모험!

〈하티와 광대들〉은 ‘생명의 황금열매’라는 고대 인도의 설화를 소재로 창작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고귀한 희생, 생명, 죽음 등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으며 인형, 가면, 그림자 등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 등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인도의 이국적인 모습을 담았다.

황량한 사막에서 마주친 왕과 아이, 그들은 과연 황금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죽음의 사막, 신기루 넘어 ‘비슈누’ 신이 지키는 고귀한 황금나무가 있다. 황금나무에는 생명열매와 죽음열매가 열려있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인도의 ‘굽타’ 왕은 황금나무에 열려있는 생명열매를 찾아 떠나면 여정을 떠난다. 사막을 헤매는 고된 여정 중 ‘굽타’

초연연도 2020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극단 토박이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5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극장(500석)

무대크기 폭10m x 깊이7m x 높이7m(최소)

왕은 황금나무의 죽음열매를 구하러 가는 아이 ‘아소’를 만나게 된다. 왕이 일으킨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아소는 왕을 미워한다. 티격태격 우여곡절 끝에 굽타왕과 아소는 함께 황금나무를 찾아 떠나게 되고, 황금나무를 지키는 비슈누신은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려 하는데...

